

다중체계 이론과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전 현 주
(원광대)

I. 서론: 연구배경 및 방향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 놓는 작업에 불과하지만 번역의 결과는 문화의 이전과 발전 및 사상의 형성과 변화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번역의 결과와 전체 출판물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번역의 역사에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현상과 연계하여 번역물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성격을 규명하고 통합적으로 관찰하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번역 문학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홈즈(James S. Holmes)가 분류한 번역학 분류표에 의거하여 순수 번역학의 하위 범주인 기술번역학에서 분류한 3가지 연구방법 즉 번역물 중심의 연구와 과정 중심의 연구 그리고 기능 중심의 연구에서 세 번째 연구방법인 번역물의 기능 중심 연구를 따른다. 그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의 1945년부터 1985년까지의 번역현황을 다중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물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파악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문학과 장르를 망라하여 번역된 작품

과 번역되지 않은 작품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물로 보는 문학 다중체계(polysystem)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에서 시기별 번역 작품의 특징과 경향 그리고 영향력 등이 국내의 상황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번역 출판물의 바람직한 선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다중체계 이론과 이를 통해본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1. 다중체계 이론의 탄생

1970년대 에벤-조하르(Even-Zohar)와 투리(Toury)는 다양한 문학과 장르를 망라하여 번역된 작품과 번역되지 않은 작품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학의 다중체계(Polysystem) 개념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고 결성된 서유럽 중심의 번역학자 중 헤르만스(Hermans 1985)는 이 분야의 연구 논문을 모아 발간한 책에서 ‘조작학과(Manipulation School or Group)’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Munday 2001: 14, 120), 그의 서문 ‘번역학과 새로운 패러다임(Translation studies and a new paradigm)’에서 기존의 번역이론과 달리 조작학과의 번역이론은 역어의 민족문학 내에서 번역작품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며, 번역텍스트를 역사적 대상으로 하나의 자율적 텍스트 유형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문학을 주어진 문학권내에서 상이한 장르, 학파, 사조 등이 독자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상호간 항시 투쟁하는 다중체계로 보았다. 이러한 체계는 어느 한 사회에서 관련체계(문학적 또는 초문학 체계)의 총체적 조직망과 연관된다. 조작학과의 번역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그 문화권내에서 모든 종류의 저술은 물론 번역 텍스트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역어 중심의 번역 이론은 지난 20년 간 번역학의 중요 분야로 자리잡고 번역의 표준과 법칙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 규범 번역학의 발달로 이어졌다(Toury 1995: 10).

2. 다중체계의 개념

에벤-조하르는 다중체계 이론에서 하나의 문학작품을 동떨어진 별개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질서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문학 질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문학은 사회적, 문화적, 문학적, 역사적 열개이며, 문학 규범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홍망성쇠’를 반복하면서 투쟁하는 것으로 본다.

다중체계 이론을 발전시킨 조작학과 학자들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문학 사료편찬 이론(Tynjanov 1927/71-2; Munday 2001: 109에서 재인용)에 기초한 문학적 다중체계를 번역 이론에 도입하였다. 번역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적 요인이 역어권의 민족문학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천 언어(source language)보다 목표언어(target language)를, 번역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번역 문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번역 문학이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1)목표언어의 번역 작품을 선정하는 면과 2)번역 규범과 행동 및 정책이 기타 상호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면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에벤-조하르는 새로운 용어인 다중체계 개념의 근간을 여러 가지 시스템간의 관계에 역점을 두었으며, 혁신적인 체계와 보수적인 체계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영고성쇠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중 체계의 핵심은 ‘역동적인 진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영고성쇠로 말미암아 번역 문학은 다중체계 내에서 주류 혹은 부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번역 문학이 주류를 형성하면 ‘다중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Even-Zohar 1978/2000: 193). 번역문학은 보통 당대의 가장 지배적인 체계모니 원천 문화를 따르며 이런 경우는 문학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Robinson 36). 주로 선도적인 작가들이 중요 작품을 번역하게 되므로, 번역은 새로운 시학이나 테크닉 등을 도입하게 되므로 목표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는 선도적인 요소가 된다. 번역 문학이 주류를 형성하는 경우(Munday 2001: 110)는 다음과 같다: 1) ‘新(young)’ 문학이 구축되면 ‘舊(older)’ 문학은 기성 모델로 비취진다. 2) ‘주변적(peripheral)’ 다시 말해 ‘열등한(weak)’ 상황에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학 유형이 수입된다. 이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문

화에 흡수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에벤-조하르는 이 경우 ‘대개 주변적인 문학은 번역문학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했다. 3) 기존 모델이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학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 혹은 해당 국가 문학이 진공 상태에 처한 경우에 자국의 문학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이국의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수월해진다.

번역 문학이 부류를 차지하면 다중 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목표 시스템의 문학 규범에 맞추기 때문에 보수적인 경향이 된다. 하지만 번역 문학 그 자체도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번역 문학은 정치 풍토에 따라 언어 및 국가별 번역 작품의 수와 성격에 있어서 증감 및 백색위주의 편중된 현상이 발생했음을 제 II·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 체계 이론을 번역 수용사에 관한 고찰과 연관지으면 문학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권력과 관련지어 연구할 수 있고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번역의 기능이 발생하는 문화 및 문학 시스템 내에서 번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중체계 이론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의 번역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번역물 선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다중체계 이론을 통해 본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30년 간 정치라는 절대성에 왜곡되어 백색문학만이 번역을 통하여 이입된 기형성(畸形性)을 빚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차츰 그 기형성에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하여 제3세계 문학이 조심스럽게 번역되기 시작하더니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적성 국가였던 소련과 중공과 국교 수교가 이루어져 이들 국가 및 그 위성 국가의 문학도 개방되기 시작하여 금서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김병철 1998: 7). 이와 같은 현상은 문학은 사회적, 문화적, 문학적,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부구조로서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시기별로 나타난 정치적 이념, 거장과 노벨상 수상자 중심의 번역 편중 현상, 출판사의 판매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

략, 그리고 독자의 선호도 등을 개별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이 시스템이 번역물 선정 시 과연 시스템끼리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는지 그 흔적을 주로 번역된 소설을 양적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1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김병철(1995: 21)¹⁾은 그의 책 서문에서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 전쟁, 휴전, 서울 수복 등 역사적 격동기를 계기로 출판 문화의 개화를 맞이하게 되며, 일제 강점기의 암흑시기의 반동으로 전민족적 요망으로 굶주렸던 서양문화에 대한 갈증해소를 불가피하게 번역 문학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체계(system)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불충분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학 유형을 수입할 필요성(Munday 2001: 2-110)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물은 지식과 문화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연도 국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기타	계
1940-45	5	2	2	0	1	3	13
1946-50	40	27	19	35	5	28	154
계	45	29	19	37	6	31	167

<표 1> 1940-50년 역간된 단행본의 수

<표1>2)의 번역된 단행본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941년부터 태평양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외국 문화에 접할 기회가 완전히 두절된 암흑기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13편). 하지만 이후 5년 간은 이전 5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역간의 수(10배 이상 증가된 154편)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주어진 사회의 텍스트 수입이 늘어날수록

1) 이 책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김병철(1998)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를 따른다.
 2) ‘표’에서 인용하는 통계는 김병철의 분석에 근거하여 편집하였다. 이는 다음의 모든 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사회는 불안정하며 헤게모니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Robinson 37).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좌우의 이념 격돌이 격심했던 시기로 우리나라의 번역 문학은 문화의 양상이 정치의 영향력에 좌우되어 번역된 작품의 수는 미국(27편)에 비하여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작품(35편)에 오히려 편중되었다. 특히 주로 톨스토이(Tolstoy)와 투르게네프(Turgenev) 등 반공작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당시의 정치 상황 특히, 전쟁과 휴전, 서울 수복과 그 이후 제1공화국의 철저한 반공 정책의 영향으로 지구촌의 반쪽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과 중공의 현대문학은 물론이고 제3세계 문학의 번역도 전무했다. 이와 같이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에는 주도적인 이념의 향방에 따라 해당 국가 문학은 진공상태(Munday 2001: 110)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연도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계
1950-59	128	192	258	81	30	7	89	785

〈표 2〉 1950-59 역간된 소설의 수

1950년대에는 해방 전 영국 소설이 주종을 이루던 데 비하여 해방 후는 미국소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작가 선정에 있어 대중적인 인지도에 따른 경향이 강했다. 펄벅(Pearl Buck)과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등에 대한 관심은 두 작가 모두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점도 있지만 펄벅(25편)의 중국 편향과 헤밍웨이(23편)에 대한 그의 영화를 통한 인지도가 이 두 작가에 집중하여 작품을 번역하게 된 원인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시기는 6.25 사변 이후 강력한 반공 정책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대한 통제가 심해져 용공 문인들의 대거 월북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용공 문학의 쇠퇴를 가져와 러시아 작가의 경우 반공작가위주로 번역될 수밖에 없었다. 전체 81편의 작품 중 프롤레타리아 작품은 고르키(M. Groky)의 『첼카슈』(Chelkash) 한 편뿐이고 작가 역시 19세기의 대가의 작품 중심이었고 20세기

작가로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의 『醫師 지바고』(Doctor Zhivago)가 6편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동시에 노벨문학상 수상 사퇴를 한 반동적인 작품이란 점에서 당시 독서계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소설은 러시아가 우리의 적성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전 5년에 비하여 번역 비중이 감소(약 20%에서 10% 이하)한 것으로 우리의 번역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에 민감하여 안전한 무풍지대에 칩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패전국 독일 문학에 대한 독자의 기대도 그리 높지 않았지만 동양적 향수를 담은 헤르만 헤세(Hesse)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고(27편), 레마르크(E. M. Remarque)의 6편의 역사 중 3편이 『개선문』(Arch of triumph)이었고, 괴테(Goethe)의 14편의 역사 중 9편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이었다.

위의 표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번역 문학 자체도 정치, 문화, 역사적인 요인에 의하여 문학의 규범이 역동적으로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번역 작품이 양적인 면에서도 계층이 뚜렷하게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문학의 경우 1950년대까지 거의 번역과 거리가 멀었다(7편). 무엇보다도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어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 서적을 번역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국교가 단절되어 일본 책을 정식으로 수입할 수 없었으며, 일본 작품을 번역을 통하여 읽을 세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 역시 일본 소설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킨 점 역시 번역이 저조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는 후일 자국의 사회체제(system)가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로 다시 작용(Munday 2001: 110)하게 된다.

3. 2 1960년대

1960년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그에 따른 제3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반공정책과 독재 정책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에 맞물려 백색문화에 편중된 번역 문학의 르네상스적 개화 현상이 도래한다. 적성국가인 소련의 현대 문학의 번역은 거의 봉쇄되었고 용공작가의 작품을 배제한 전집류와 문고류가 흥

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이는 상업적인 전략이 작용하여 수적으로 번역물이 증가한 반면에 외국 문화 이입에 대한 르네상스적 개화의 시초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국가 연도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계
1960-69	246	332	372	152	116	467	183	1868

〈표 3〉 1960-69 역간된 소설의 수

1950년대에 비하여 영미 소설의 번역이 거의 2배(50년대 영국 : 128편, 미국 192편)나 이루어졌으며 50년대에 이어 미국 소설이 영국 소설에 비하여 수적으로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국교 관계상 당연한 귀결이며 국가별 번역 문학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을 때 다중체계 내에서 역동적인 진화과정이 일어난 결과이며 정치적인 상황과 계층화 발생은 상관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문학의 경우 일본어를 모르는 세대의 자연적 증가와 1965년 체결된 한일국교협정으로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일본서적이 마음대로 이입될 수 있었고, 일어를 아는 세대는 일어로, 그렇지 못한 세대는 번역을 통하여 일본을 알려는 욕구의 갈증을 해소했다. 따라서 1950년대와는 판이한 번역 현상이 발생했다. 번역물의 수(467편)에 있어서도 여타의 국가에 비하여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15년 간 접하지 못했던 일본문학의 진공상태를 채워줄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독자의 호기심 증대로 나타났다. 또한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일본어 번역의 역자층이 두꺼웠던 것도 크게 한몫 했다. 또한 5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프랑스 소설이 영국, 미국에 비하여 번역된 작품수가 많은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를 비롯한 거장은 물론 신예 작가의 작품이 출판사와 역자의 노력으로 많은 빛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번역물은 세계 명작에 대한 관심, 반독재적, 반공적인 작품에 대한 관심, 전후의 최신 소설에 대한 관심, 60년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3세계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인기를 끈 영국 작가로는 서머셋 모옴(W. Somerset Maugham)(22편), 그레

엄 그린(Graham Greene)(10편), 조지 오웰(George Orwell)(5편), 토마스 하디(Thomas Hardy)(18편), 브론테 자매(Charlotte Brontë, Emily Brontë)(14편), 코난 도일(Conan Doyle)(11편),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5편), D. H 로렌스(D. H Lawrence)(10편)가 있으며, 미국작가로는 노벨상 수상작가인 펄벅(56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5편), 헤밍웨이(32편),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15편)을 비롯하여 2차 세계 대전의 대표적 전쟁 소설가, 남부 작가, 흑인 작가, 부조리 문학의 유대계 작가, 추리소설 작가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폭넓게 소개되었다. 프랑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를 포함한 거장의 작품이 주로 번역되었다. 앙드레 지드(André Gide)(41편), 모리스 르블랑(Mourice Leblanc)(38편), 알베르 까뮈(Albert Camus)(18편), 로망 롤랑(Romain Rolland)(15편) 등을 꼽을 수 있다.

3. 3 1970년대

60년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1970년대의 번역 작품 역시 일방 통행식의 반공 작품이 주로 번역되었고, 용공이라는 딱지만 붙지 않으면 그 이입 번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1970년대야말로 우리나라 번역 문학의 절정기를 이루어 각 국 번역물의 양적인 팽창의 폭도 매우 크다. 또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반공’이라는 어휘에 단서가 붙어 사상의 억압에서 약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이게 된다. 소련, 중공을 위시한 동구의 공산국가의 공산주의작가의 작품을 번역 이입할 수는 없었지만 제3세계 작품의 번역을 시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현대 번역문학이 공산국가의 작품 번역을 기피했다는 기형성에서 미미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한국의 번역문화는 군사 문화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적색작품 번역이 빛을 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시대적인 의의가 있다. 이로써 당시 금기시되었던 붉은 문학에 대한 목마른 독자의 알 권리가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연도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계
1970-79	782	1158	937	471	244	506	605	4703

〈표 4〉 1970-79 역간된 소설의 수

70년대 번역 문학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추리문학전집』, 『풍림명작추리소설시리즈』, 『미스테리명작』 등 추리소설의 전집, 선집 등의 출판물이 홍수를 이룬다. 60년대와 마찬가지로 번역 문학의 양적인 팽창은 시류에 편승하고 이윤추구에 치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는 문학이 주어진 문화권내에서 상이한 장르, 학파, 사조 등이 독자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상호간 항시 투쟁하는 다중체계의 관점을 반영한다. 한편 소설 번역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색깔이 중시되어 융공적인 성격의 작가와 작품은 번역 작품 선정시 배제되었다.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로 거장들의 작품과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이 편중되어 번역되었으며 전 시대와 비교하여 거의 같은 작가의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보파르의 『제2의 성』과 알렉산드르 솔제니친(Solzhenitsyn)의 인기, 1979년에 예술좌익전선의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아방가르드의 한 사람인 칸덴스키(Kandensky)의 소개, 실존주의 문학의 예언자 카프카(F. Kafka)의 인기 등은 특이할만한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 이념의 장벽을 벗어난 삼국지, 연애소설, 무협소설 등이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경우 되도록 이념을 배제하고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번역되었을 정도이다.

3. 4 1980년대

우리나라의 번역문학은 1985년을 정점(4703편)으로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지나치게 많은 전집류와 문고류의 역간으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상회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제3세계 문학의 문호가 차츰 개방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소련의 현대문학을 마음대로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빙무드가 번역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우리의 번역문학의 기형성이 불식될 수 있었다.

국가 연도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계
1980-85	627	1409	611	287	169	530	313	4703

〈표 5〉 1980-85 역간된 소설의 수

번역 작품의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백색문학 일색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조지 오웰(영)의 『1984년』은 미래소설에 대한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이다. 70년대 이후 강한 관심을 가진 제3세계 문학, 그중 미국 내의 제3세계 문학이라 할 수 있는 『뿌리』(Roots)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Haley, Alex Palmer)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리고 70년대 흑인 문학을 대표하는 199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Tony Morrison)의 작품도 번역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소설과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쟈르뜨르(J. p Sartre), 보봐르(Simone de Beauvoir) 등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에 대한 향수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러시아 문학은 톨스토이(Tolstoy)(55편 중 30편이 『부활』), 도스토옙스키(Dostoevsky)(55편 중 28편이 『죄와 벌』), 투르게네프(Turgenev) (52편 중 21편 『첫사랑』과 관련) 등의 작품이 판에 박은 듯 전집에서 주종을 이루었고 세계문학 전집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편중되어 독자가 알고 싶은 새로운 작가가 거의 발굴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채 한 세대의 작가의 작품만 되풀이하여 번역되었다. 소련의 현대 문학, 즉 60년대 활약한 아브라모프(Fëdor Abramov), 솔로우힌(Vladimir Soloukhin) 등 소위 ‘농부파’를 비롯하여 ‘도회파’ ‘민족파’ 작가인 오쿠드자바(Baulat Okudzhava), (비스토프)Yurij Bistov,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작가 세라피모비치(Serafimovich), 푸르마노프(Dmitrij Furmanov) 등에 접근하려는 과도기적 시도 내지는 ‘제4세대’라 불리는 소련의 전후파 세대의 대표자들이며 해빙기 이후의 새로운 청춘문학의 기수들인 Vasilij Aksënov, Georgij Vladimov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으나 아직 활발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번역 문학의 기형적인 현상이며, 정치에 발목이 잡힌 번역계의 복지부동식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키의 『어머니』의 번역은 소극적인 태도를 타파한 용기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강한 경향과 명확한 프롤레타리아적 목적의식이 발견되는 작품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독일 문학의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괴테(Goethe)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25편중 21편)과 헤세(H. Hesse)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87편) 이 시기는 서독의 마르틴 발저(Martin Walser)의 『도망치는 말』, 피터 바이스(Peter Weiss)의 『父母와의 離別』, 지그프리트 렌츠(Siegfried Lenz)의 『독일어 시간』,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의 『머리 없는 세상』, 『현혹』, 『꺾속의 횃불』, 『구제된 허』 등 신예 작가의 작품에 접근을 시도한 점은 역자들의 사명감에서 기인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엘리아스 카네티는 198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관심으로 4편이나 번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독의 해빙전의 주도적 위치에 있던 대가이나 우리나라에선 금기 시되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품이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번역 문학이 정치성을 극복하고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문학 역시 색깔 없는 작품 위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文革 이전의 중국문학인 상흔문학(傷痕文學)은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1985년 巴金의 『家』가 역간되었는데 이 작품은 붉은 색채가 전혀 없는 작품이었으나 인민공화국 건국 후 좌경 즉 좌익작가 연맹과 전국문학가 연맹의 부주석의 요직을 담당했던 작가의 이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지연되었던 점이다.

3.5 한국의 번역 문학사에 영향력을 미친 시스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번역 문학사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시스템 - 첫째, 반공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이념으로 주로 백색문학에 편중, 둘째, 거장이나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 중심으로 소개, 셋째,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한 전집류와 문고판의 범람, 마지막으로 독자의 선호도 - 이 우리나라의 1945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장르, 학파, 사조를 초월하여 상호간 항시 투쟁하는 시스템으로 번역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 문화, 문학, 경제 등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항시 투쟁을 하며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백색문학 일변도에서 벗어난 좌경 이념 서적이나 제3세계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번역시도로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정치성 극복과 기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불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와 거장 중심의 번역물이 재간, 중간되고 출판사의 판매력 향상을

위하여 전집류 출판에 매달리는 등 출판사는 물론 역자와 독자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 무명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여 번역을 시도했던 젊은 번역 문학의 기형성을 탈피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선의 노력이었다.

III. 결론

역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지배하는 다중체계 내에서 번역작품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번역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역사적, 문학적 관련체계의 총체적 조직망과 연결되어 서로 장르, 학파, 사조를 뛰어넘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스템의 작용으로 작품 선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탄생한 텍스트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다시 여타의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진화를 거듭한다. 한국의 번역 문학사를 살펴보면 백색편중의 번역물, 거장 중심, 전집류의 홍수 등 복지부동식 번역 전략과 결과물이 양산되는 등 폐단도 적지 않았으나 기형성을 불식시키고 독자의 알권리와 선호도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스템끼리 서로 역동적인 진화과정을 거친다는 다중체계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다만 양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번역 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시스템의 역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번역학과 번역 문학의 개별성과 작품의 진가가 왜곡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다중체계 모델을 적용하여 번역사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번역가는 번역물이 역어 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영향을 고려하여 작품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을 겸비한다면 독자의 갈증을 해소하고 의식을 성숙시켜 바람직한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번역 작품을 잉태하여 자국민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철. 199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상/하권. 서울 : 을유문화사.
- 김효중. 1993. 「번역과 문학」: ‘문학작품 번역이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번역학 심 포지움.
- Baker, Mona.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Y: Routledge.
- Even-Zohar, Itamar. 1978.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Holmes, J.,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Leuven, Acco, 1978.”
- _____. 1990. *Polysystem Studies*,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for Poetics and Semiotics; Durham, NC: Duke Univ. Press, special issue of *Poetics Today*, 11(1).
- Hermans, T.. 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Beckenham: Croom Helm.
- Holmes, James S.. 1994.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2nd ed., Amsterdam & Atlanta: Rodopi.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Y: Routledge.
- Gentzler, Edwin.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London & NY: Routledge.
- Robinson D. 1997. *Translation and Empire*. London & NY: Routledge.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Porter Institute.
- _____.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huttleworth, Mark. 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

[Abstract]

Polysystem Theory and Korean Modern History of Translation

Jeon, Hyunju
(Wonkw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what factors affected the selection of the translated texts and untranslated ones and led the climate of translational culture between 1945-1985, adding polysystem theory to the Korean modern history of translation.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two frames: 1) the birth of polysystem theory and its concept, 2) the periodical features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of translation.

Itamar Even-Zohar, polysystem scientist, who notices that a literary work is not studied in isolation but as part of a literary system, which itself is defined as 'a system of functions of the literary order which are in continual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orders.' Literature is thus part of the social, cultural, literary and historical framework and the key concept of the system theory is that there is an ongoing dynamic of 'mutation' and struggle for the primary position in the literary cano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is theory are focusing on the target text above the source text and on the translation result above its process.

Through the Korean historical turbulences between 1945-1985 such as Liberation from Japan, Korean War, Truce, the political and social unrest, the periodical trait of Korean modern translation history is, in short, the deformation of ideology, name value, marketing and readers' preference. In the process of the deformation, translators and publishers try to translate and introduce the works of socialism, communism, Third World, new and striking writers, and the likes, in order to meet the right of the readers.

In conclusion, polysystem affecting the Korean modern translational culture are four factors: 1) the anti-communism political idea leads to white-color literature translation, 2) the works of Nobel prize winners and world-famous writers take the initiatives, 3) the strategy of the publishers produces the explosion of complete works and collections, and 4) the preferences of readership urge to find the new works and writers. All in all, considering the status, roles and influences of the translated texts in the target culture, translators have to have a very grave and responsible attitude to the work and translate.



▶ Key Words: polysystem, Itamar Even-Zohar, mutation, Korean modern history of translation, manipulation